

성삼 후 25주일 (연중 33주일) 감사성찬례

집전/설교: 최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요셉 지휘/선창: 김니콜라 반주: 정모니카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 산본교회

개회예식

†입당성가 327장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6쪽 집 전 자
†죄의고백 6쪽 다 함 께
†기원송가 거룩하신 하느님 (9쪽)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분 기도 집 전 자
전능하신 하느님,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억눌린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 있는 이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하느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독서 다니 12:1-3 말 은 이
성 시 시편 16편 다 함 께



- 1 하느님, 나를 지켜 주소서.
○ 이 몸은 당신께로 피합니다.
- 2 주님께 아뢰옵니다.
○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 3 주여! 당신은 내가 받을 분깃이며 축복이시니
○ 나의 미래는 당신이 책임지십니다.
- 4 좋은 생각 주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 밤에도 좋은 이반짜입니다.
- 5 주여,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 내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습니다.
- 6 그러므로 이 마음 이 낮이 기쁘고 즐거워
○ 내 육신마저 걱정없이 사오리이다.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 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 |멘

2독서 히브 10:11-14, 19-25 말 은 이
†복음환호송 말 은 이
†복음서 마르 13:1-8 말 은 이

설교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22쪽 다 함 께
†봉헌성가 391장 다 함 께
성찬기도 23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102쪽(C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8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9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105쪽(C곡) 다 함 께
성체성가 452장 성 가 대
†영성체후기도 41쪽 다 함 께
사랑의 하느님, 우리가 한 빵을 나누어 먹고 같은 잔을 마심으로, 서로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가 되는 축복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의 은혜로 항상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42쪽 집 전 자
†파송성가 348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11월 17일)	다음 주일(11월 24일)
1독서	정연창	이숙영
2독서	박순호	홍종분
대 도	김준우	권순호
다음주일 전례독서	다니 7:9-10, 13-14 시편 93 묵시 1:4하-8 요한 18:33-37	
성 가	238 297 345 553	
복 사	이동우 이서현	보혈조력 정국진
다음주간 교회청소	<2조> 김준우 조장은 류한신	

(1997-2024 / 교회설립 27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4년 11월 17일 성삼 후 25주일(연중 33주일) · 나해 · 녹색

제28-46호

종말과 구원



오늘 복음은 세상 종말(終末)의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대한 성서의 관심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지구 종말설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지구종말설은 이른바 마야의 달력을 이야기하던, 소행성 충돌을 말하던, 실은 별로 가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터전인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는데 어떻게 나는 살아남을까가 관심사라면 우스운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환경오염과 자원남용으로 인한 기후(생태)위기를 고민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종말론은 심판(審判)과 구원(救援)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신앙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시한부 종말론 따위에 속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종말론의 핵심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입니다. 종말에 관한 신앙의 이야기는 인간의 질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 절대적일 수 없고 인간의 운명은 하느님 앞에서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변하고 결국은 끝장날 수 밖에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는 이들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인간의 바벨탑은 무너져야 합니다. 인간의 이상인 맘몬, 물신(物神)의 힘은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휘두르는 죽음의 권세는 꺾여야 합니다. 성전(聖殿)조차도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익숙한 체제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지만 실은 그 과정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구원인 동시에 심판이지요. 그 하느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느님 나라의 초대에 응답하고 그 하느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느님 나라를 찬양하며 그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 우리 교회의 예배와 선교입니다. 엉뚱한 종말론에 속지 않고 하느님을 신뢰하여 세상의 변화와 고난을 견디는 일이 신앙입니다. 교회력의 한 해를 보내며 세상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교구장 김장환(엘리아)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욱(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올리아나)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 사임, 그리고 <안전한 교회>

캔터베리 대주교직은 세계성공회 일치의 중심이며 으뜸 직무입니다. 지난 11월 12일 화요일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님이 사임을 표명하셨습니다. 영국성공회뿐만 아니라 세계성공회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교회의 가치와 선교 사명을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스틴 웰비 대주교님의 사임 이유는 교회 내 평신도 지도자가 수십 년간 벌인 아동과 청년 성추행과 학대에 관련돼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 관련 복음주의 선교 단체의 지도자이며 변호사였던 사람이 세계 각지의 선교 캠프 등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 대주교님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웰비 주교님은 미흡한 조치에 깊이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교가 되기 전에 해당 선교 단체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적이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으리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임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로 하시고 사임을 발표하셨습니다.

교회와 신앙인은 가장 먼저 피해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약 15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아픔과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입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 사회 여러 곳에서 숨 죽이며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보살피는 일에 교회는 힘을 써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는 언제나 아동, 청소년, 여성, 여러 형태의 약자들이 환영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내 성직자들과 지도자들은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사목 적합성을 면밀하게 평가받아야 하고, 약자들을 향한 관심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세계성공회는 웰비 주교님의 지도에 따라 <안전한 교회> 지침을 마련하고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한국의 성공회도 <안전한 교회> 협정 체결로 세계성공회와 더불어 교회와 사회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지도했던 웰비 주교님이 관련된 사안으로 물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세심하고 사려 깊어야 하는 지를 성찰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산본교회의 성직자와 신자들은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약한 이들을 먼저 보호하고 보살피는 <안전한 교회>가 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번 주간 외울 말씀 25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로마 10장 17절).

교회소식

■ 전례와 사목

◆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다음 주일(11월 24일)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신앙의 한 해를 마감하며, 새롭게 펼쳐지는 신앙의 시간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 전입 예식(신자 영접식) 안내

다음 주일(11월 24일) 오전 11시 성찬례 중

◆ 조준행 프란시스 신부님 설교 말씀

다음 주일 11시 성찬례에는 조프란시스 신부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 알림

◆ 전교우 기도 교육

오늘(11월 17일) 애찬 후에 기도 교육을 합니다.

◆ 산본교회 재무보고

다음 주일(24일)에 교회 재무보고를 드립니다.

◆ 각 활동단체 2025년 선교 계획서 & 예산안 제출

다음 주일(24일)까지 활동단체장은 선교활동 계획서와 예산안을 마련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 성서공부

11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 축성/설립기념일 & 추수감사주일 성료

지난 주일은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로 지켰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제단 장식과 풍성한 애찬을 준비 해주신 베다니회 어머니회원들과 꽃꽂이를 해 주신 카타리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베드로 아버지회 주관 가을 산행

다음 주일(11월 24일) 애찬하고 소그룹 모임 후에 산행을 합니다.

◆ 서울교구의회

11월 23일(토) 오전 10시 / 성공회대학교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임혜지(17일) 이범희(19일) 장성환(22일)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1,375,000원

김운권/홍양금 김준우/조장은 류한신/이민녀 박종례 유군상 정선우 정시원 최서은 최자연 허훈제

■ 주일헌금 165,000원

고미순 권순호 백옥경 유군상 이원주 이윤식 황선숙

■ 추수감사헌금 2,350,000원

고미순 권순호/황선숙 김도환 김동준/이선자 김승현/유정훈 김운권/홍양금 김준우/조장은 류한신/이민녀 무명 박종례 백남진/박선희 유군상 유아윤 유아현 윤희진 이윤식/백옥경 이은경 이진봉/김영란 정국진/이숙영 정수 정연창/박순호 조준행신부 최미혜/이상현 최순덕 최용욱 최용준신부/백기은 허재원 허훈제

■ 축성감사헌금 520,000원

권순호/황선숙 권혜연 류한신/이민녀 무명 백남진/박선희 이은경 이진봉/김영란 최순덕 조준행신부 채희영/이인식

■ 감사헌금 200,000원

김대식(집수리) 김은정 류지민 류한신(손주 두들) 휘데스조(소그룹 모임) 정수

■ 특별헌금 20,000원

유군상(나눔의집) 유군상(늘푸른 복지관)

◆ 주간전례독서 (11월 18일~23일 / 연중 33주간)

	독서	복음
18일(월)	묵시 1:1-3, 2:1-5	루가 18:35-43
19일(화)	묵시 3:1-6, 14-22	루가 19:1-10
20일(수)	묵시 4	루가 19:11-28
21일(목)	묵시 5:1-10	루가 19:41-44
22일(금)	묵시 10:8-11	루가 19:45-48
23일(토)	묵시 11:4-12	루가 20:27-40

✧ 기도해 주세요 ✧

◆ 우리교회를 기억하며

- 주일을 잘 지키는 신앙공동체 / 새교우 환대

◆ 고3 수험생을 위하여 이동우 미카엘

◆ 어려운 교우와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욱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